

매일경제



조각가 김기라 두산아트센터서 과감한 작품 선봬

욕망에 찌든 종교의 뒷모습

기사입력 2012.03.15 17:03:43 | 최종수정 2012.03.15 19:24:00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얼굴의 반쪽은 그리스 여신이고 나머지 반은 불상이다. 로마 신상의 복부 아래에는 이집트 신의 다리가 길게 뻗어 있다. 기괴한 형상이다. 이뿐만 아니다. 그리스 신화의 포세이돈과 헤라의 조각상, 간다라 불상 등으로 이뤄진 머리에 헤라클레스와 예수의 가슴이 있고 몸통은 거대한 잉어로 장식돼 있다. 팔다리는 아프리카 원시 부족 전사와 고대 이집트 신의 것들이다.

여러 신을 조합한 결과는 어떨까. 뜻하지 않게 괴물 형태가 나온다. 마치 인간의 욕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듯하다. 젊은 작가 김기라는 인간의 욕망으로 점철된 종교를 주목한다. 종교의 공존이 해피엔딩이 아니라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도 에둘러 꼬집는다.



서울 종로 두산아트센터 1층 두산갤러리에서

열리는 그의 개인전 '공동선(共同善)-모든 산에 오르라'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神)들을 만날 수 있다. 그의 대표작은 역사와 신화 종교에서 발췌한 콜라주 작업 '스펙터 - 몬스터' 시리즈다.

작가는 "공동선은 인간이 만들어낸 욕망이자 허구"라며 "요즘 교회를 보면 공동체의 종교라기보다는 종교를 위한 공동체로 변모됐다"고 날을 세웠다. 전시장 초입에는 LED 조각이 벽에 설치돼 있다. 'God 4Gives U, But I Do Not', 즉 '신은 너를 용서했지만 나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로 번역되는 텍스트 작업이다.

여기에는 다른 뜻도 있다. 신이 인간에게 준 것은 믿음과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까지 더한 네 가지(4gives)라는 것이다. 총 작품은 60여 점. 전시장에는 지난 10년간 세계 20여 개 국에서 수집한 300여 종의 골동품도 함께 설치돼 있다. 전시는 29일까지. (02)708-5015

[이향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용어사전

 |  | 

Copyright © 2007 매경닷컴(주) All Rights Reserved.